



사회복지사 단결력 10% 이하, 정치 세력화 필요성 100% 이상

신년특집 사회복지사 보좌진 간담회

취재 사진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대담 참석자 김승연 문병호 의원 비서관
강지영 고경화 의원 비서관
구슬기 백원우 의원 비서관
서윤정 장향숙 의원 비서관
장원종 고경화 의원 비서관
하미영 강기정 의원 비서관

정해년 새해를 맞아 국회에서 의원보좌진으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사 보좌진은 현재 총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년, 사회복지사가 나아 가 방향에 대해 갈음해보자.

국회 입문 동기, 추천 등 다양

이들의 국회 입문 동기는 교수님 추천에서부터 직접 부딪히기까지 다양하다. 2~3번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고 사전 실습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김승연 :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야되는데, 어느 현장에 가야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복지관도 있고, 시설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어느 현장에 가서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곳이 국회였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무작정 의원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첫 시작이 쉽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됐다.

구슬기 : 처음 국회에 발을 들인 것은 여성유권자 연맹이라는 곳을 통해서였다. 대학생들을 선발해 국회에 실습형태의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학교 게시판을 통해 보고 국회라는 곳이 궁금하니까 한번 넣어보자는 마음에 4학년 2학기 때부터 약 4개월 가량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중요한 일을 한 건 아니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데 일이 정말 재미 있었다. 그래서 졸업을 하기 전에 정식으로 지원하였지만 내가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력서를 넣은 후 2~3번 떨어졌다.

이후에 다른 기관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

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서윤정 : 나는 학교에서 공부만 했었고, 정치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정치와 연결시킬 생각은 못했다. 그러던 중에 학과사무실에 난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정책쪽에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하고 있어서 지원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는데, 다행히 대학원 동기들 중에 국회에서 실습을 한 친구들이 있어 물어봤더니 정말 많이 힘들지만 배울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강지영 : 나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추천의뢰가 들어와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연락이 안오길래 안됐구나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려 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법안 통해 사회복지한계 조금씩 개선

국회에서의 활동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다. 살벌한 생존경쟁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미약함을 새삼 느끼게 한 곳이 바로 국회였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곳도 국회였다.

김승연 : 내가 속한 의원실은 법제사법위로 처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 의원님이 법사위로 옮기게 되어서 나 역시 법사위 일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안 하면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고, 항상 사회복지를 한단 생각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이후 법사위로 오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나는 법사위에서 더 확대된 복지를 하겠다! 확대된 복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인 복지는 아니지만 법사위 내의 보건복지 관련 된 일을 했다. 법사위의 활동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사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구슬기 비서관



김승연 비서관



서윤정 비서관



지금은 복지위로 돌아갔을 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관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미영 : 국회라는 곳 자체가 나에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들어와서 하는 일 자체는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거나 실습 나가서 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다. 정말 이곳은 살벌한 생존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런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참 미약하고나라는 것을 국회에서 지내오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강지영 : '나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일한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일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않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한 것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법안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뿌듯하였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의 국회 진출 위해

국회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진출 분야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사회복지사들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운다.



실습 등을 통해 현장을 체험하고 국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연 비서관은 국회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실습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연 : 앞으로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전공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너무 없다. 즉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국회 보좌진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실습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 물론 지금 국회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좌진이 몇 명 안되고, 국회에서 가지는 입지는 별로 크지 않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미영 :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입법과정을 맛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들 기관이 기본적인 사회복지실습 시스템이긴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습을 통해 후배들이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앞서 말한 후학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찬성하며 이들 실습생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메뉴얼 개발도 필요한 것 같다.

구슬기 : 우리 의원실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7명이 국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내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활동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과 게시판에 여러차례 홍보하였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원서는 단 한 장 들어왔다. 심지어 조교실에 전화까지도 했는데 조교실에서 조차 국회에서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국회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강지영 : 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될 때가 많다.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곳에 충분히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국회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다

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는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도 중요한데 사회복지사들은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회에 입문하길 원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전공외에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사회복지사정치세력화 위해 액션 취할 때
이들의 공통된 제언은 사회복지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타 단체에 비해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이다. 그도그럴것이 사회복지사들은 앞에 나서기를 꺼려한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승연 : 나는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복지정책 발전과 정치적 요인과는 관련성이 크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과 정치 세력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의 단체장, 시·도의원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활발히 활동해 주고 국회와 결합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삼아서 추진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원종 : 나는 협회에서 근무하다 국회에 온지 몇 개월 안됐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참여, 사회행동이 너무나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힘을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의 큰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각 단체마다, 지역마다 사

회복지사들이 남들이 가니까 같이 묻어서 가자는 식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낼 수 있는 힘있는 사회복지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협회의 단결력을 100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의 단결력은 10미만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100이상이다.

서윤정 : 다른 단체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익보호를 위해 정치적으로 뭉치는 힘이 매우 크다. 반면 사회복지들은 그런 힘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사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3명의 보좌진이 서면을 통해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다.



▲ 백기승 장향숙 의원 보좌관

앞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될 수록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논쟁의 중심에 협회 등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전반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의 중심세력에 서야 한다.

각 단체별 이익을 넘어서 사회복지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는 복지 욕구를 역시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표현해야 할 것이다.



▲ 추경민 장향숙 의원 보좌관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문직과 다르게 과도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직종의 특성상 희생정신을 갖는 것도 좋지만 직업인으로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예로 든다면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직업 확대를 위한 큰 장애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행될 당시에는 핵심에서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논의에 참여하였다.

협회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좀 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사회적 문제제기도 좋지만 회원단체로서의 역

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 개개인이 강화되면 협회 역시 사회적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다.



▲ 김용환 정화원 의원 비서관

국회에 욕심이 있어 22번의 이력서를 내고 23번째 합격해 국회에 입문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력서를 낸 중에 지금이 가장 내게 적합한 자리인 것 같다.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3년여를 활동하며 느낀 것은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욕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토론회를 개최해도 참석율이 부진하며 욕구도 처우개선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사회복지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시설 비리 문제 등 다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아쉽기도하고 화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가 바로서야 복지정책이 바로설 것이다. SW